

# 국무총리 모두말씀

-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, 6.5(월) -

- 조류 인플루엔자(AI)가 다시 발생했음
  - 이번 AI는 군산지역 가금농가의 오골계 등이 소규모 농가 판매나 전통시장 유통 등을 통해 제주, 경기 파주, 경남 양산, 부산 기장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됐음
  - 오늘 최초 신고된 제주지역의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었고, 정부는 내일 6월 6일 0시를 기해서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함
- 국무총리인 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AI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전국단위의 초동대응과 차단방역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음
  - 우선, 전국 일시이동중지(6.7. 0시부터 24시간), 전통시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, 무허가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 등 그 동안 방역이 취약했던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실시해 주기 바람
  - 둘째, AI 의심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,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·도태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초동방역 조치를 시행해 주기 바람
  - 셋째, 전국단위의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설치, 일제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함
  - 넷째,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농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AI 의심 농가가 더 없는지 신속히 파악하고, AI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AI 확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어 주기 바람

- 다섯째, AI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어 철새에 의한 유입뿐만 아니라 국내에 토착화 돼서 변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백신대책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함

□ 이미 AI로 큰 피해가 크게 생기고 있음

- 농가와 국민들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됨
- 농식품부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AI가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